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⑭ 전북 고창 선운사 배롱나무

동백도 배롱나무 꽃도 비로자나불서 하나 되네

선운사를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시인 혹은 가수가 된다. 백제의 고승 검단 스님이 "오묘한 지혜의 경계인 구름[雲]에 머무르면서 갈고 닦아 선정[禪]의 경지를 얻는다" 하여 '선운(禪雲)'이라 지었다는데, '선'에는 고운 마음으로 착하게 베풀며 수행하다 보면 고요한 상태에 이르러 온전히 삶을 성찰할 수 있어서일까? 그래서 아름다운 절창들이, 파가지 못하는 애절한 그리움들이 널리 회자되는 것일까?

하지만 아는 이들은 알고 있다. "선운사 골째기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안했고/ 막걸릿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상기도 남었습디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었읍디다"라는 서정주의 시와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 바람 불어 설운 날에 말이예요 / 동백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 눈물처림 후두둑지는 꽃말이예요..."라는 송창식의 노래에 등장하는 동백꽃이 배경이자 주인공이 되어 감정을 압도했다는 걸. 그래서일까, 선운사로 향하는 도로에서 본 배롱나무 꽃이 천왕문을 지나자마자 경내 전체에 안정감을 주는 배롱나무에서 붉은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아도 쓸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저절로 자작시가 읊어진다. "동백꽃 진 선운사 보러 갔더니/ 일주문 밖에서 피고 있는 배롱나무 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안했고/ 그래도 작년 그 어디선가 본 열정이 뜨겁게 얹혀집니다."

초라하다. 시가 시답지 않게 쓰여졌다. 그래서 소원나무 이름을 달고 있는 감나무에 다가가 '시 좀 잘 쓰게 해주세요'라는 소원지를 달까 하다가, 폭염이더라도 선운사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게 시를 잘 쓰는 비결일 것 같아 천천히 흙바닥과 돌바닥에 발자국을 찍는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선운사 대웅보전을 가려는데 지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목탁 소리 울려 나오는 명부전을 지나 팔상전, 산신각 그리고 꽃 대신 반짝반짝 잎이 빛나는 동백나무 군락지를 올려다본다. 창건 당시 화재 예방 차원에서 조성했다는, 500여 년 되었다는 동백나무들, 역시 꽃이 피어 있어야 폭포수 같은 분수가 될 듯하다.

그래서 칸막이 가득한 대웅보전 뒤란으로 가 그 느낌을 크게 가져볼까 하다가, 금동지장보살좌상이 봉안된 지장보궁에서 비밀 소원 하나 빈 뒤 만세루에 다가선다.



선운사 만세루 앞의 배롱나무.

만세루는 우리나라 누각 중에서 가장 큰 정면 9칸, 옆면 2칸 규모다. 보통 사찰의 루(樓)는 2층 모정 형식으로 낮게 지어져 있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면서 예를 갖추어야 하는데, 선운사는 평지라 굳이 2층을 만들 필요가 없어 단층으로 지었단다. 만세루는 보물 2065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정유재란 이후 화재로 소실된 대양루를 영조 28년(1752년)에 다시 지으면서, 올곧지 않은 나무를 버리지 않고 조각보를 잇듯이 정교하게 짜맞춰 완성하였단다. 베어진 나무를 쓰지 않으면, 오랫동안 풍파 그리고 곤충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흙이 되었을 텐데, 굽은 듯 뒤틀린 듯 하늘을 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호승 시인이 나무에 대하여 노래한 "나는 곧은 나무보다 굽은 나무가 더 아름답다"라는 구절이 생각난다. 그래서 감나무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듯한 배롱나무를 다시 보면서 시적 상상을 준비한다.

중국 원산으로 부처꽃과에 속하는 배롱나무는 7월에 꽃이 피기 시작해 가을까지 약 100일 동안 아름다운 자태를 이어간다고 해서 백일홍 혹은 목백일홍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초본 백일홍과 구분하기 위해 백일홍나무라고 했다가 배롱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배롱나무는 나무껍질이 얇은 데다가 자라면 자랄수록 자꾸 벗겨져 매끄럽다. 이 모습이 피부 같아서 만지면 간지럼을 탈 것 같다고 해서 간지럼나무로도 불리고 있는데, 중국 이름은 자미화(紫薇花)로 본래 배롱나무 꽃은 자줏빛을 띤다. 지금은 계속 개량을 해서 흰 꽃을 피우는 흰 배롱나무도 있고, 분홍색 배롱나무도 조경수로 많이 심고 있다.

사찰이나 서원에 배롱나무를 많이 심는데, 더운 여름 수행도 공부도 게을러지기 십상인 날들, 태양보다 더 폭발할 듯 쉬지 않고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정진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런데 배롱나무는 무궁화처럼 한 꽃이 100일 동안 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 피고 지고 하루 피고 지고를 반복한다. 즉, 화무십일홍 (花無十日紅)의 자연법칙에서 화끈하게 비켜간 아름다운 나무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의 사육신 성삼문이 남긴 "어제 저녁에 꽃 하나가 지더니 / 오늘 아침에 꽃 하나가 피었네 / 서로 백 일을 바라볼 수 있으니 / 너를 상대로 술 마시기 좋아라"라는 시에서 일편단심(一片丹心)을 유추하고, 붉을 단(丹)에서 붉은 꽃을 감정이입해 선비 정신을 만들어낸다. 아울러 얇은 수피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수피를 자꾸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며, 매일매일 쌓이는 번뇌도 씻어본다. 그러다가 겉과 속이 같다는 걸 보면서 겨울의 동백꽃, 여름의 배롱나무 꽃, 다 대웅보전 비로자나불에서 하나가 된다는 생각에 이르면, 선운사 동백꽃에 배롱나무가 담겨 있을 것 같다. 그래도 넓은 마당 붉게 꽉 채우는 배롱나무에 시 한 편 남기리라. 언젠가.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⑬ 송재학의 '공중'

공즉시색, 색즉시공의 세상

〈空卽是色〉 〈色卽是空〉

공중 / 송재학

허공이라 생각했다 색이 없다고 믿었다 빈 곳에서 온 곤줄박이 한 마리 창가에 와서 앉았다 할딱거리고 있다 비 젖어 바들바들 떨고 있다 내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허공이라 가끔 연약하구나 회색 깃털과 더불어 뒷목과 배는 갈색이다 검은 부리와 흰 뺨의 영혼이다 공중에서 묻혀온, 공중이 묻혀준 색깔이라 생각했다 깃털의 문양이 보호색이니까 그건 허공의 입김이라 생각했다 박샛과 곤줄박이는 갈필을 따라 날아다니다가 내 창가에서 허공의 날숨을 내고 있다 허공의 색을 찾아보려면 새의 숫자를 셈하면 되겠다 허공은 아마도 추상파의 쥐수염 붓을 가졌을 것이다 일물무렵 평사낙안의 발묵이 번진다 짐작하자면 공중의 소리 일가(一家)들은 모든 새의 울음에 나누어 서식하고 있을 것이다 공중이 텅 비어 보이는 것도 색 일가들이 모든 새의 깃털로 바빴기 때문이다 희고 바래긴 했지만 낮달도 선염법(渲染法)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공중이 비워지면서 허공을 실천 중이라면, 허공에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다 바람결 따라 허공 한 줌 움켜쥐자 내 손바닥을 칠갑하는 색깔들, 오늘 공중의 안감을 보고 만졌다 공중의 문명이라 곤줄박이의 개체 수이다 새점(占)을 배워야겠다

—송재학 시집, 《검은색》, 문학과지성사, 2015—

퍽, 깊은 시다. 불교시라 하기엔 언뜻 잡히는 것도 없다. 하지만, 공즉시색(空卽是色), 색즉시공(色卽是空)의 진리를 깊이 체득하고 있는 이라면 이처럼 황홀하고 아름다운 시도 만나기 힘들 터다. 그럼 어느 대목이 공즉시색이고, 색즉시공인가. 우선 독자들께서 공즉시색과 색즉시공의 진리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정독하길 바란다. 눈치 깊은 독자들은 시 속의 '선염법' (渲染法: 동양화에서, 화면에 물을 칠하여 마르기 전에 붓을 대어 몽롱하고 침중한 묘미를 나타내는 기법)처럼 서서히 그 이미지가 잡혀올 것이다.

그럼, 우리 같이, 직접, 그 선염법에 젖어보자. 우선 시의 첫 부분이다. "허공이라 생각했다 색이 없다고 믿었다". 캬, 정말 멋지다. 송재학 시인은 능청스럽게도,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허공이라 생각했다 색이 없다고 믿었다"고 공즉(空卽)을 풀고 있다. 그리고 곧바로 "빈 곳에서 온 곤줄박이 한 마리 창가에 와서 앉았다 할딱거리고 있다"고 시색(是色)을 등장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내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허공이라 가끔 연약하"다고 공즉시색을 완성하고 있다. 우리 독자들의 눈이 시 속의 '발묵(潑墨)'처럼 여기까지 번졌다면, 이젠 이 시 읽기가 정말 황홀하고 즐거울 것이다.

"박새는 갈필을 따라 날아다니다가 내 창가에서 허공의 날숨을 내고 있다 허공의 색을 찾아보려면 새의 숫자를 셈하면 되겠다". 하, "허공의 색을 찾아보려면 새의 숫자를 셈하면 되겠다"니, 이 얼마나 기막힌 색즉시공인가. "공중이 텅 비어 보이는 것도 색 일가들이 모든 새의 깃털로 바빴기 때문이다"니, 이 얼마나 황홀하고 기막힌 공즉시색과 색즉시공의 해석과 분석인가. 한술 더 떠 송재학 시인은 "공중이 비워지면서 허공을 실천중이라면, 허공에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다 바람결 따라 허공 한 줌 움켜쥐자 내 손바닥을 칠갑하는 색깔들, 오늘 공중의 안감을 보고 만졌다"라고 공(空) 속의 색(色)의 '안감'을 직접 만져보고 색 속의 공을 직접 쥐어보았다. 이만하면 도통 중에서도 도통이다.

이 시를 처음 접하는 순간 필자는 온몸을 바르르 떨었다. 필자는 언제쯤 이런 시를 써보나 하는, 주눅마저 들었다. 송재학 시인은 시 속에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언의의 빛을 따라가면 불교가 있고 붓다가 있고 절이 있고 우주가 있고 삶의 생로병사가 있고 하느님이 있고 우리 인간들이 사는 온갖 사랑과 상처와 고통과 멋의 풍경이 있다.

실제로 송재학 시인이 2006년 펴낸 〈풍경의 비밀〉(랜덤하우스)을 보면 그 〈발톱〉이 보인다. 필자는 그 〈발톱〉에서 '한국의 카프카'를 보았다. 낮에는 치과의사라는 지상의 본업으로 살고 저녁에는 지하실에 마련한 내간채(內間寨)라는 작업실에서 시 쓰기를 본업으로 지하생활자로 사는 한국의 카프카. 그는 그 지하실에서 "현생(現生)에서 전생(前生)을 감각하고 그 전생을 후생(後生)으로 더듬어가"고 있다. 남도 미황사와 대둔사 그리고 무위사를 돌면서 "미황사 주춧돌은 발톱을 가진 생물"이라 읽은 뒤 "발톱을 자주 깎지 않는 건 게으른 시인과 다름없다. 발가락에 꼬물거리는 건 때 많은 발톱이지만 절집의 긴 발톱은 연꽃이나 게의 모습으로 게으름을 피우다가 훅! 불면 사라지다가 금방 한 뼘씩 자라는 능청마저 가졌다"면서 "남해의 리아스식 해변이 모차르트의 희유곡(嬉遊曲)이라는 것은 다른 시인의 말이기도 하지만, 달마산의 스카이라인을 꼭짓점으로 세우고, 대웅전 주춧돌의 발톱과 부도탑을 밑변으로 연결하면 아름다운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진다"고 했던, 그 〈발톱〉, 그 때 낀 〈발톱〉 하나를 더 보자.

"벵골 보리수가 친친 감은 탑은 사면불이다 부처와 나찰이 교대로 나타나는 얼굴, 이런 얼굴은 대체로 무색무념이거나 또 그림자도 없다 오후의 햇빛은 사면불에서 광대뼈와 그림자를 지우고 윤곽만 강조한다 그래도 나뭇잎의 넓은 평화가 깃든 것은 누구나 나찰과 부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처에게 나찰의 얼굴이 필요한 것도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다 햇빛의 감전이 만드는 캄캄한 얼굴들, 역광이 세우고 일몰이 비친 얼굴 속에 내 얼굴이 있다 귀면상의 눈동자가 경험하는 것들을 나도 내 눈동자 속에서 헤아렸다 내가 찾는 사람과 닮은 사면불을 오래 친견했다"

같은 시집에 실린 〈사면불〉이라는 시다. 정말 카프카처럼 현생과 전생과 후생을 오가고 더듬고 감각하는, 그리하여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났더니 커다란 갑충으로 변해 있는 '그레고르 잠자'(카프카의 〈변신〉의 주인공)처럼 송재학 시인은 부처에서 나찰을 보고 나찰에서 부처를 보며 그 나찰의 귀면상(鬼面像)이 자신이 찾는 사람과 같은(실은 자신이) 사면불(그레고르 잠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일일시호일

19년간 공장일 전전하다
뇌출혈로 죽음 문턱

미얀마 출신 양묘나잉씨 가족 부양 위해 한국행 택해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병원비 4000만원 '막막'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